



아나운서 사회공헌활동 대담 특집

'나눔에 중독되다' 아나운서팀의 나눔 이야기

세상 온갖 중독 중 '나눔 중독' 만큼 긍정적인 것도 없을 것 같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타인을 돕는다는 점에서도 훌륭한 일이겠지만, 많은 '나눔 중독자' 들은 "뭔가 나누어 주고 왔는데 도리어 내가 무언가를 받는 기분"이라며 나눔이 주는 신기하고 오묘한 기분을 칭송한다. 남과 나에게 '더하기'가 되는 일이 바로 나눔이라는 이야기다. 이를 실천하고 있는 정석문·최기환·유혜영·이윤아 아나운서를 지난 5월 22일(수) 만나 "어떻게 나눔을 시작하게 되었느냐"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최기환 아나운서와 유혜영 아나운서는 최근 아프리카 부룬디의 산모들을 위한 병원 건립비용을 쾌척했다. 최 아나운서가 국민연금 홍보대사 활동비로 받은 1000만 원을 내었고,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유 아나운서가 적극적으로 받은 300만 원을 보냈다. 정석문 아나운서는 "사실 최근에 기부한 것인 테다가, 액수나 커서 그렇지 '가짜'라며 "좀 창피하다"고 털어냈다. 최근 SBS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희망TV>를 통해 부룬디에 다녀온 그는 산모를 위한 병동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최기환 ▶ "병원 원장님께 '건물을 지으려면 얼마가 필요하냐'고 여쭙더니 우리 돈으로 1500만 원이면 지을 수 있다고 하였고, 그리고 귀국했는데 지난해부터 했던 국민연금 홍보대사가 딱 연장이 된 거예요. (웃음) 그렇게 병동 건축 사업이 시작됐는데... 제대로 견적을 뽑아 보니 수도 시설에, 의료 기기까지 해서 지으려면 2억 원이 넘는 돈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계속 모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집속 무비월드> 녹화장에서 최기환 아나운서로부터 부룬디의 상황을 전해들은 유혜영 아나운서는 그동안 부어 왔던 적금이 생각났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적금을 꺼기로 했다.



유혜영 ▶ "최기환 아나운서가 시멘트 비용을 댄 셈이고, 저는 뭐...창들 정도? (웃음) 제 다음 타자로 철근비용을 맡아 주실 분이 나타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에 더해 유혜영 아나운서는 8월에 <희망TV> 프로그램 촬영차 탄자니아로 향한다. 최기환 아나운서의 뒤를 이어 희망원정대에 참여하는 것. "2년 전에 말라위에 간 적이 있는데, 그 때엔 멋모르고 가서 내 안위가 가장 중요했다"고 회상한 유 아나운서는 "이번엔 부끄럽지 않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갈 생각"이라며 "이번엔 좀 달라질 것 같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런가 하면 정석문 아나운서와 이윤아 아나운서는 '행동파'에 속한다. 정석문 아나운서가 나눔과 인연을 맺은 건 2005년. 국제 구호단체 월드비전을 통해 스와질랜드의 한 아이를 후원하기 시작한 것이 처음이다. 그리고 3년 뒤, 정석문 아나운서는 스와질랜드 땅을 밟게 됐다. <희망TV>의 전신인 <기아체험 24시> 촬영에 동행하게 된 것이다. 그 후로도 정석문 아나운서는 짬내 내티오피아와 몽골 등 해외로 향했다.



정석문 ▶ "나눔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일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2~3만 원이면 조금 좋은 저녁 한 끼 값, 몇 명의 점심값이나 커피 값 정도죠. 하지만 저개발 국가에서 그 돈은 한 명의 목숨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같은 돈을 최고의 가치 있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단지 돈으로만 계산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편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투자라고 생각해요. 기회가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또 부담스러워 할까봐 텔레마에요. (웃음)"

<TV 동물농장>의 안방마님 이윤아 아나운서는 '파지·공복'을 즐기는 여자. 때

일 보도국에서 읽고 버린 신문이며 회사 자리에서 생긴 술병까지, 모두 아나운서의 핸드백에 들어간다. "집 앞에 파지를 즐기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돈을 드리면 안 받으셔서 생각해 낸 방법"이란다. 이 외에도 이 아나운서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해 밥을 짓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책을 읽는다. 일종의 '생활밀착형' 나눔이다. 그가 SBS에 입사한 2007년부터 시작한 일이다.



이윤아 ▶ "사실 저도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자랐어요. 고등학교 때 형편이 어려웠는데, 선생님들께서 저처럼 어려운 친구들을 모아서 방과 후에도 과외처럼 공부를 시켜 주셨죠. 그렇게 대학교에 가고 아나운서가 됐다는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나 누리고 있는 게 모두 제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있어요. 누군가를 도와면 남에게 또 도움을 받을 거라는 믿음만 있다면 나눔은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요. 가끔씩은 엄마가 주신 것, 선생님이 주신 것

을 당연하게 받는 게 아니라고만 생각한다면요." 네 아나운서 모두 지금 필요한 것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데에 동의했다. 그런 점에서 <희망TV>는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기환 아나운서는 "유명한 사람들이 어려운 지역에 다녀오고, 그 실상을 보여줌으로써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하게 하는 게 목적인 것 같다"며 "방송을 통해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천 명 중 한두 명이라도 '그래? 그러면 한 번 해볼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석문 ▶ "맞아요. 현장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봉사활동'은 아니에요. 제가 집을 지어봤어요, 우물을 파 봤겠어요. 오히려 구호단체 직원들만 바빠지는 거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그곳에 가서 했던 걸 이곳에 전할 수 있고, 그러면 또 관심이 커지고, 이런 면들이 강하죠."

유혜영 ▶ "실상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선배 아나운서들이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이걸 알 턱이 없었을 거예요. 100명 중 99명이 '가식적'이라고 욕을 해도, 한 명이 마음이 흔들려 '후원전화 한 통 해 볼까?' 하면 그게 할 수 있는 일종의 재능 기부 아닐까 생각해요. <희망TV>가 좋은 게, 일시적인 후원이 아니라 정기 후원을 받아요. 비록 총 모금액은 적더라도 지속적으로 후원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윤아 ▶ "사실 누군가 알려주지 않거나, 내가 행복하기 위해 한다는 마음이 커요. 그런 점에서 꾸준히, 조용히 계속 하고 싶고요."

네 아나운서는 얼굴을 마주한 시간 내내 서로의 방법이 더 좋은 것 같다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눔에 옳은 방법이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돈을 기부하는 것도, 실제로 현장에 가 활동하는 것 모두 선한 의지에서 출발한 일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방법에도 돕든,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마음'이 아닐까. 끊임없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네 아나운서의 모습은 참 뜨거웠다. 이미, 이들은 '진짜'였다.(오마이스타 이미나 기자)

임직원 봉사활동



5월 말까지 4개부서가 다양한 봉사활동을 시행하였다. 보도지원팀은 5월 16일(목) 인천 영종도의 왕산해수욕장 쓰레기 수거를 하였고, 양천구 목동 동사무소에 20만원 상당의 쌀과 라면을 현물 지원하였다. TV기술팀과 공강현신팀은 5월 24일(금)에 각각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 쓰레기 수거와 파주시 적성면 농촌 일손 돕기에 참여하였으며, 정택팀은 5월 28일(화) '동물사랑실천협회'를 방문하여 유기견과 산책을 하고, 유기견 우리와 센터 주변을 청소하였으며 애견 용품과 간식을 제공하였다.

6면은 사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시는 공간입니다. 가족 여행이나 미담, 기교, 사연을 담은 사진, 사보에 대한 의견 등을 사보 담당자(PRM) 서희정에게 제보해 주시면 채택되신 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혜련 부장님의 퇴임을 기념하며

SBS 아트텍 이혜련 선배님, "당신의 당당함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입사해서 얼마 안 된 때였다. 점심을 먹고 엘리베이터를 함께 기다리던 동료 기자가 "아니 우리 회사에 저런 미인이 있었나? 저분이 누구야?"하는 물음을 던졌다. 그래서 나도 엉겁결에 그 여성을 쳐다보게 되었는데, 그야말로 '아름다운 커리어우먼'의 모습이었다. 나중에 그 분이 SBS 의상의 중추를 담당하고 계신 이혜련 선배님 것을 알게 됐고, 지금까지 나는 그 분과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SBS 창립과 함께 이 선배는 많은 프로그램의 의상을 후배 몇 명과 함께 도맡으셨다. 프로그램에 걸맞는 의상 준비, 제작진과의 원활한 소통, 의류업체와의 관계 강화 등 수많은 과제를 해결하면서 이 선배의 젊음은 환하게 빛났다.

이혜련 선배가 지난 5월 27일(월) 정년퇴임을 맞으셨다. 이 선배는 "후회 없다. 이제 좀 자유인으로서 살고 싶다."는 털털한 멋마디 말로 퇴임사를 대신하셨다. 이 선배는 내게 있어 '함축적이지 않은 간결한 문장'으로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는 감사한 선배 중의 한 분이시며, 그러한 말들을 새김으로 인해 나는 예전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는 듯하다. 내 정년을 상상해 보면서, 이 선배가 본보기로 보여준 '당당한, 아름다운, 그리고 쿨한 여성'의 가르침을 나도 후배들에게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편성전략본부 리스닝센터 PR팀 박현정 차장대우)



사주 기고 | 나를 찾는 힐링 걸기 후기

보도본부 뉴미디어부 김정기 차장대우

지난 5월 25일(토) '청태산 치유의 숲'에서 5km의 숲길을 3시간 정도 걸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걸어본 경험 있으셨어요? 목적지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걸어본 경험 있으신가요? 등산을 하거나 보면 목적지까지 빨리 가고 싶은 욕심이 생기고, 공원을 가면 사람이 많을 것 같아 걱정을 하게 되고, 식당에 가면 음식이 맛있을까 또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이런 '힐링 걸기'는 이런 고민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숲 속을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숲 속을 걸었습니다. 바람 소리와 새소리가 전부였습니다. 스마트폰도 없고 노트북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니다. 단, 옆에는 이번 '힐링 걸기'에 함께 참가한 어머니분이었습니다. 그 동안 어머니와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번 '힐링 걸기'가 어머니와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주었습니다.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숲 속에 숨은 꽃과 나무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본 도깨비 부채꽃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오래간만에 즐거운 여유. 그 동안 일반 하며 느끼지 못했던 여유를 새들과 함께 즐길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6월 '나를 찾는 힐링 걸기'는 29일(토) 충북 괴산의 산막이옛길과 양반길 코스를 걷게 될 예정입니다. 많은 사주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QuizQuiz

982호 사보 내용을 참조해서 퀴즈의 답을 찾으세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6월 14일(금)까지 사보 담당자(PRM) 서희정에게 사내 메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시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총 5명의 사주에게 수예당 화과자를 상품으로 드립니다.

파워 FM에서 '킬부'가 매주 2시부터 4시까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2006년 5월 1일(월) 첫 방송된 이후 7년간 라디오 전채 청취율 1위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 제목은?

- ① 두 시 탈출 킬부소 ② 최화정의 파워 타임 ③ 박소현의 러브 게임 ④ 봄의 영스트리트

☎ 981호 정답: ② 못나아 주의보



SBS가 선사하는 6월의 판타시로맨스

<너의 목소리가 들려> 제작발표회

이보영, 이종석, 윤상현, 김해숙, 정용인, 김광규 등 화려한 출연진과 국산 변호사와 초능력 소년인 펠치는 범접판타지로맨스라는 이색적인 소재로 방송진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연출 조수현, 극본 박해련)가 5월 29일(수) 목동 본사 13층 SBS홀에서 제작발표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영섭 EP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 대해 "마음을 읽는다는 판타지 설정과 여러 장르가 혼합된 전개로 시청자들도 더 많은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판타지와 로맨스, 긴박감 넘치는 사진, 코믹한 캐릭터의 향연으로 수목드라마의 새로운 강자로 기대되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6월 5일(수) 첫 방송된다.



제작본부 <K 팝스타> 포맷 중국 판매, SBS의 제작 노하우로 중국 시장을 공략하다

SBS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K 팝스타>가 북경의 배급사 '레전드미디어'와 포맷 판권 계약을 맺었다. 이로써 <K 팝스타>의 중국 버전인 <중국성역량(中國星力量)>(가제)이 중국 제작사 '신스루'에서 제작되어 산둥 위성TV를 통해 7월 초부터 방송될 예정이다. '레전드미디어'는 중국 내 고화력 인재들이 많고 프로그램을 선별하는 안목이 뛰어나며, 산둥 위성TV는 오락 채널로서 시청률 5위권 내에 드는 영향력 높은 방송사이다. 제작본부 감도경 차장과 <K 팝스타> 연출을 담당하던 박성훈·이양화 PD는 5월 9일(목)~13일(월)까지 중국을 방문하여 프로그램 컨셉트와 일정, 큐시트, 카메라 배치도와 편집 노하우 등을 세세히 설명해주어, 중국 방송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감도경 차장은 "중국의 제작 스태프들이 한국 프로그램 제작 방식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열의가 높았고, 특히 TV프로그램의 편집 기술에 주목하였다. 중국 스태프들은 영국이나 미국 프로그램 포맷이 문화와 정서가 달라서 낯설고, 제작 과정에서 중국 특유의 분위기를 융통성 있게 살려서 재창조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비해 한국 프로그램이 중국 시청자들이 보기에도 정서상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아, 포맷을 토대로 제작할 때 경쟁력 높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며 중국 방송 시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서 "특히 중국 제작진들은 <K 팝스타>를 비롯한 한국 TV 프로그램의 긴장감과 흡인력 있는 편집에 감탄하였고, 이에 대한 노하우를 성심성의껏 전해준 우리 PD들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아주 우호적인 대접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정글의 법칙>, <런닝맨> 등 SBS의 다른 프로그램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현재 중국 방송 시장에 투입되는 자본 규모가 상상 이상이다. 한국 방송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좋은 계기를 맞았다고 본다"고 SBS 프로그램의 해외 진출을 긍정적으로 전망하였다.

SBS 착한 드라마 3중 세트 <뫼난이 주의보> <원더풀 마마> <출생의 비밀>

<뫼난이 주의보> '힐링 드라마' 호평 속에 경쟁 드라마 제치고 시청률 1위

작하고 따뜻한 가족드라마를 표방한 <뫼난이 주의보>도 형제간의 우애와 갈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온라인상 트래픽이 높게 나오고 있으며, UV(방문자 수)가 전주 대비 300~400%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막장 코드를 남발하는 타사 일일극과의 격차를 좁히면서 5월 31일(금) 수도권 시청률 9.3%(닐슨코리아)를 기록하며 0.1% 차이로 역전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극적인 설정을 배제하고 잔잔한 감동을 주는 내용으로 시청자의 공감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더욱 의미가 크다. 이에 제작진은 "앞으로도 시청자의 마음을 치유하는 좋은 드라마를 계속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뫼난이 주의보> '명품 아역 배우 3인방' 기자 인터뷰

일일드라마 <뫼난이 주의보>가 견전하고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는 요인으로, 주연배우 임주환, 강별, 최태준의 어린 시절을 연기하며 극의 초반을 이끌어간 강이석(공주소 역), 정다빈(공진숙 역), 남다름(공현석 역) 등의 호연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부모의 결혼으로 남매가 되지만 끊임없이 갈등하면서도 점차 가족애를 느끼게 되는 심리를 잘 표현하여 드라마의 몰입도를 높였으며, 성인 배우들도 이구동성으로 아역들의 연기를 극찬하고 있다. 지난 5월 28일(화) 목동 본사 13층 컨퍼런스룸에서 '명품 아역 3인방'으로 각광받고 있는 강이석, 정다빈, 남다름 군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강이석 | "항상 극 중 배역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번 작품에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열렬합니다. 제 연기력도 향상된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정다빈 | "감독님께서 연기 지도를 정말 많이 해주셔서, 이번 작품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 전에 출연했던 작품들보다 <뫼난이 주의보>를 더 기억하게 될 것 같아요. 촬영하면서 힘든 점도 많았지만 재미있었던 기억이 더 많았고, 칭찬까지 받아서 기분 좋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다름 | "저도 다빈이 누나처럼 <뫼난이 주의보>를 통해서 배운 것이 많고요. 촬영하면서 힘든 때도 많았지만, 감독님과 스태프 분들께서 연기에 대해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기분 좋아요. 그리고 '명품 아역 3인방'이라고 해서 기분도 좋지만, 나쁘지는 않아요."(웃음)

<원더풀 마마> '행복과 힐링'으로 승부하는 건강한 주말극

조기 치매 판정을 받은 어머니가 젊었을 세 남매의 자립심을 키워주기 위해 위장 파산을 하고, 이로 인해 풍족함을 누리었던 삼남매가 졸지에 온갖 세파를 겪으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원더풀 마마>도 취업난, 청년백수, 개인파산 등 현실적인 사회 문제를 조명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극단적인 전개를 배제하고 가족 구성원의 내적인 성장과 진정한 화합을 받고 건전한 시선으로 조명하여, 시청자에게 가족애와 행복의 의미를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주어 호평을 받고 있다.

<출생의 비밀> 가족의 가치를 진정성 있게 묘사, 찬사 이어져

기억상실증으로 가족과의 행복했던 10년의 추억을 잃어버린 여자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조건 없는 부모의 사랑, 애증을 넘어서는 용서와 치유의 과정을 깊이 있게 묘사하고 있는 <출생의 비밀>에 여러 매체들이 '명품 드라마'라는 찬사를 쏟아내고 있다. '네이버'의 정석희 칼럼니스트는 김홍희PD, 한정환EP와 인터뷰를 하여 <출생의 비밀>을 심층적으로 소개하였고, 이외에도 많은 일간지에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흥행주 역의 유준상도 지난 5월 16일(목) 일산제작센터에서 개최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출생의 비밀"이 시청률은 비록 높지 않지만, 나를 비롯한 출연 배우들이 좋은 작품에 함께 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배우 즐겁게 촬영하고 있다. 시청률과 관계없이 이러한 수작이 제대로 평가받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애정을 드러냈다.

이외에도 여주인공 최서윤 역으로 이요원이 캐스팅되었으며, 2012년 드라마 시장을 평정한 <추적자 THE CHASER>를 통해 명연기를 보여준 손현주, 박근형, 장신영, 류승수 등이 출연하여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990년대 초부터 20여 년에 이르는 한국경제의 격동기를 배경으로 재왕의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욕망의 싸움을 그린 <황금의 제국>은 7월 1일부터 매주 월, 화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네 가지 색깔의 결혼 이야기 <결혼의 여신> 촬영 돌입

<출생의 비밀> 후속으로 제작 중인 <결혼의 여신>도 지난 4월 30일(화) 첫 촬영에 들어갔다. <결혼의 여신>은 신념과 가치, 인생관이 다른 네 명의 여자들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로, 남상미, 조민수, 이태민, 이상우, 김지훈, 김정태, 장영남 등이 출연한다.

<장옥정 사랑에 살다> '악녀' 장옥정의 행보가 본격화되며 상승세

장옥정의 험난한 궁궐 생활과 인연왕후와의 갈등이 증폭되며 흥미진진한 전개를 보이는 <장옥정 사랑에 살다>가 이순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표독해지는 장옥정의 모습으로 극적 긴장감을 높이며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5월 27일(월) 방송부터 시청률이 10.8%(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로 전회보다 1.9% 올랐으며, 28일(화) 방송에서 숙빈 최씨 역을 맡은 한소연이 등장하여 입체적인 갈등 구조를 형성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장옥정 사랑에 살다> 후속으로 방송될 새 월화드라마 <황금의 제국>이 5월 14일(화) 첫 촬영을 시작하며, 명품 드라마의 탄생을 알렸다. 이 날 촬영은 주인공 장태주와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내용으로, 장태주 역을 맡은 고수는 4년 만에 드라마에 출연하였음에도 안정감 있는 연기로 명불허전임을 보여주었다.

하반기 기대작 <황금의 제국> 첫 걸음을 떼다

<장옥정 사랑에 살다> 후속으로 방송될 새 월화드라마 <황금의 제국>이 5월 14일(화) 첫 촬영을 시작하며, 명품 드라마의 탄생을 알렸다. 이 날 촬영은 주인공 장태주와 가족들과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내용으로, 장태주 역을 맡은 고수는 4년 만에 드라마에 출연하였음에도 안정감 있는 연기로 명불허전임을 보여주었다.

<SBS 스페셜 - 내일도 꼭, 조 아저씨> 한국형 로드다큐멘터리의 지평을 열다

6월 2일(일) 방송된 <SBS 스페셜 - 내일도 꼭, 조 아저씨>(이하 내일도 꼭, 조 아저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에 걸쳐 안동 임동면을 배경으로 산골 마을의 만물 트럭배달부 조병기씨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따스한 여정을 담아, 점점 삭막해지는 도시 생활에 익숙한 시청자들에게 이웃 간의 정과 잃어버린 인간애를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선사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내일도 꼭, 조 아저씨>는 한국, 미국(ITVS International), 일본(NHK) 3국이 공동 제작한 작품으로, 국제적 가능성을 인정받은 한국형 로드다큐멘터리로 기획부터 큰 화제를 모았으며, '달린 마음을 여는 한국적인 이야기'라는 평가 아래 대표적인 세계 다큐멘터리마켓인 프랑스의 서니 사이드 오브 독(Sunny side of Doc)에 정식 출품되어 BIPS Award(Best International Project Showcase)를 수상하였다.

국내 최초의 수화다큐 '소리 없는 세상 밖으로' 방영

5월 26일(일) 오전 7시 10분에 방송된 <일요특선 다큐멘터리 - 소리 없는 세상 밖으로>(이하 소리 없는 세상 밖으로)는 5년 전 국제장애인 올림픽에서 의수와 의족 만드는 기술로 금메달을 획득한 청각장애인 이재선씨가 재능기부에 나선 사연을 따듯한 시선으로 조명하였다. 특히 <소리 없는 세상 밖으로>는 국내 방송 최초로 음성과 함께 수화로 내레이션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시청자들이 청각장애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화에 대한 관심을 높여 장애인에 바라는 시각을 바꾸어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제1회 법의문화상' 연이어 수상

날카로운 문제제기로 시청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그것이 알고 싶다>의 연이은 수상 소식이 전해졌다. 먼저 '김 위'의 목숨을 - 누가 이들을 거리로 내모는가' 편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수여하는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을 수상하였다. 또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5월 31일(금) 대한 법의학회(회장 서중석)가 수여하는 '제1회 법의문화상'을 수상하였다.

<자기야>가 <백년손님-자기야>로 활 바뀐다

<자기야>가 <백년손님-자기야>라는 새로운 타이틀로 시청자의 곁에 다가간다. <백년손님-자기야>는 연예계 대표 유부남이 장모(또는 장인)와 함께 24시간을 보내면서 장서(丈孀)감동의 리얼한 모습을 담아낸다. 연예계대표 유부남의 좌충우돌 처가방문기와 유쾌, 통쾌한 유부녀들의 수다는 6월 6일(목) 밤 11시 10분 <백년손님-자기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워 FM 전체 청취율 1위 7년간 부동의 청취율 1위

파워FM이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5월 청취율 조사 결과, 라디오 채널 청취율 1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두 시 탈출 킬투쇼>는 2006년 5월 1일(월) 첫 방송된 이후 7년간 라디오 전체 프로그램 청취율 1위를 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청취율 10%를 돌파했고, 2013년 현재 라디오 프로그램으로서 18.3%라는 이례적인 청취율을 기록하였다. 그래서 들어본다. <두 시 탈출 킬투쇼>의 오지영, 윤의준 PD에게 파워FM은? 그리고 파워FM의 미래는?

Q : <두 시 탈출 킬투쇼>(이하 킬투쇼)의 청취율 1위 축하드리고요, 장기간 변함없이 큰 사랑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A : <킬투쇼>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특이한 형식이며, 사실 가장 라디오적인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취자 사연 소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DJ인 '킬투'가 사연을 아주 생동감 있게 잘 전달하고 있어 몰입을 높인다고 봅니다. 앞으로 재미있는 사연과 함께 사람 사는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Q : SBS 파워FM이 지난 3월 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서 1359 라디오 청취율 1위를 차지한데 이어 이번엔 전체 청취율 1위를 하였고, 작년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 방송평가결과 대한민국 1등 라디오로 선정되는 등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채널의 경쟁력과 공익성까지 확보한 결과라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됩니다. 파워FM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A :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제작진이 즐기면서 방송하는 한편, 트렌드의 변화를 재빨리 수용하여 제작에 반영할 수 있는 내부적인 여건이 갖춰져서 신선한 기획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다 젊고 신선한 프로그램을 많이 선보이겠습니다.

청취자와 함께하면 더욱 즐겁다! 파워FM 다양한 공개방송으로 청취자를 사로잡다.

공개방송 '장대대래' <장기하의 대단한 라디오>에서는 가족적인 분위기의 소규모 공개방송 '장대대래' (장기하의 대단한 라디오, 대단한 라이브)의 출입문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장대대래'는 음악적 욕구가 높은 20~30대 청취자들로 하여금 실력과 뮤지션들의 공연을 경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공개방송 '솔로대첩' 지난 5월 21일(화) '부부의 날', <봄의 영스트리트> 제 2차 '솔로대첩'이 열렸다. 1층 락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 된 이번 '솔로대첩'에서는 가수 홍경민이 출연하여 커플들을 응원했고, 이 기운을 받아 출연한 일곱 커플 중 다섯 커플이 탄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사내 소식

우원길 사장, '201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 참석

5월 27일(월)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된 '201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SBS 우원길 사장이 한국방송협회장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SBS는 이번 방송대상에서 <추적자>가 '사회 문화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고, 뉴미디어개발팀이 국내 3D 방송기술의 국제표준화 경쟁 성공에 대한 기여로 특별상 부문 '방송 기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5월 16일(목) SBS 드라마 제작현장을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방송콘텐츠를 안정된 환경에서 제작하고 생산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SBS 우원길 사장은 '사회 문화 부문 우수상'을 시상하였고, 참석자 축배제의 순서에서 "영국이 '창조경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그 때 내세운 산업이 콘텐츠였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콘텐츠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IT산업과 모바일이 발전하는 환경에서 세계로 나갈 수밖에 없다. 방송과 통신이 힘을 합치면 한국의 콘텐츠가 세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양질의 콘텐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5월 27일(월)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된 '201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SBS 우원길 사장이 한국방송협회장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SBS는 이번 방송대상에서 <추적자>가 '사회 문화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고, 뉴미디어개발팀이 국내 3D 방송기술의 국제표준화 경쟁 성공에 대한 기여로 특별상 부문 '방송 기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5월 16일(목) SBS 드라마 제작현장을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방송콘텐츠를 안정된 환경에서 제작하고 생산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SBS 우원길 사장은 '사회 문화 부문 우수상'을 시상하였고, 참석자 축배제의 순서에서 "영국이 '창조경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그 때 내세운 산업이 콘텐츠였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콘텐츠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IT산업과 모바일이 발전하는 환경에서 세계로 나갈 수밖에 없다. 방송과 통신이 힘을 합치면 한국의 콘텐츠가 세계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양질의 콘텐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013년 제 6회 CEO미팅 개최

SBS는 6월 3일(월) 오후 4시 목동 본사 13층 SBS홀에서 2013년 제 6회 CEO 미팅을 개최하였다. 이번 CEO미팅에서는 우원길 사장이 SBS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브랜드이미지에 기여한 프로그램 <아왕>과 <K팝스타2>에 인센티브 상을 수여하였다.

구분근 본부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자 역량 강화 워크숍' 강의

구분근 드라마본부장이 5월 24일(금) 개최된 '2013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자 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강의를 하였다. 구분근 본부장은 방송통신분야 사업자의 전문가 특강에서 우리나라 방송드라마 제작현황과 방송광고시장의 현황, 그리고 방송사 자체심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설명하고, 방송제작 현실에 부응하는 탄력적 심의, 불건전한 방송콘텐츠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테니스동호회 “공을 날릴 때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저희 테니스동호회는 1년에 4~5회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매년 4월에 KBS 등 다른 방송사 5~6개사가 참여하는 '방송 유관기관 대회'가 열리고, 9월에는 SKT, 방송통신위원회 등 총 30여 개 사가 참가하는 '방송통신위원회장배 대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 춘계와 추계 대회 등 2~3회의 사내 대회를 개최합니다. 기억에 남는 대회로는, 2011년 '방송유관기관 대회' 때 5복식 전으로 진행되어 최소한 10명의 인원이 필요했는데 1명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원을 외부에서 영입하여 대회에 참가해야만 했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인원을 충원하고 경기에 임했는데, 5팀 중 2등을 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회원들의 결집력과 의지를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테니스는 게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재미가 있고, 운동량도 많아 장기간 동안 즐길 수 있습니다. 여성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무나 건강에 자신 없는 사무원에게 적극 권합니다.

금연캠페인 **출연 대신 '건강 계단 걷기' 어떠세요?** 4월 1일(월)부터 전 서울 금연이 실시되었고, 2차 금연클리닉도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금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현재 임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계단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계단걷기 홍보용 스티커를 목동사옥 사무동 1층에서 22층 계단에 부착하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강계단걷기'를 통해 '건강 UP!, 체지방 DOWN!' 하시기 바랍니다.